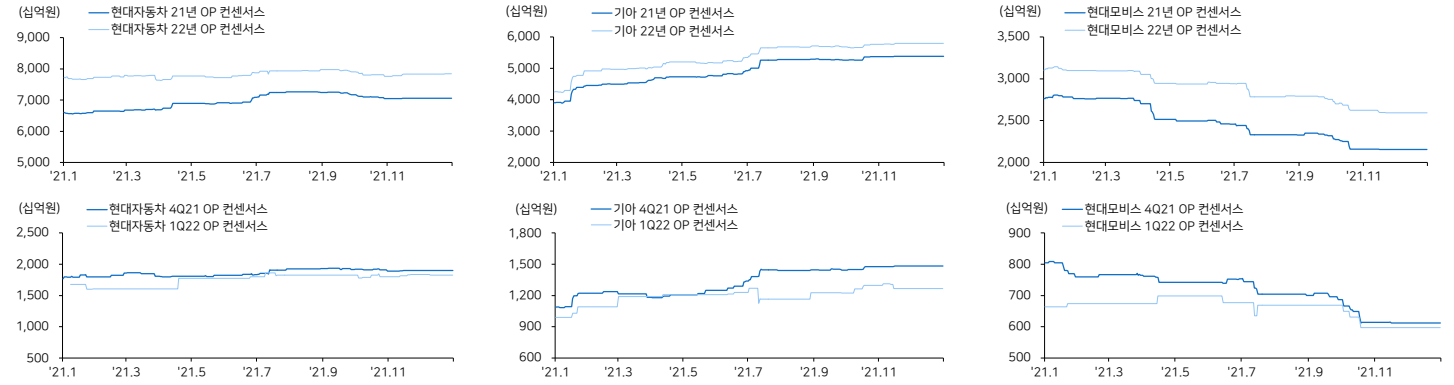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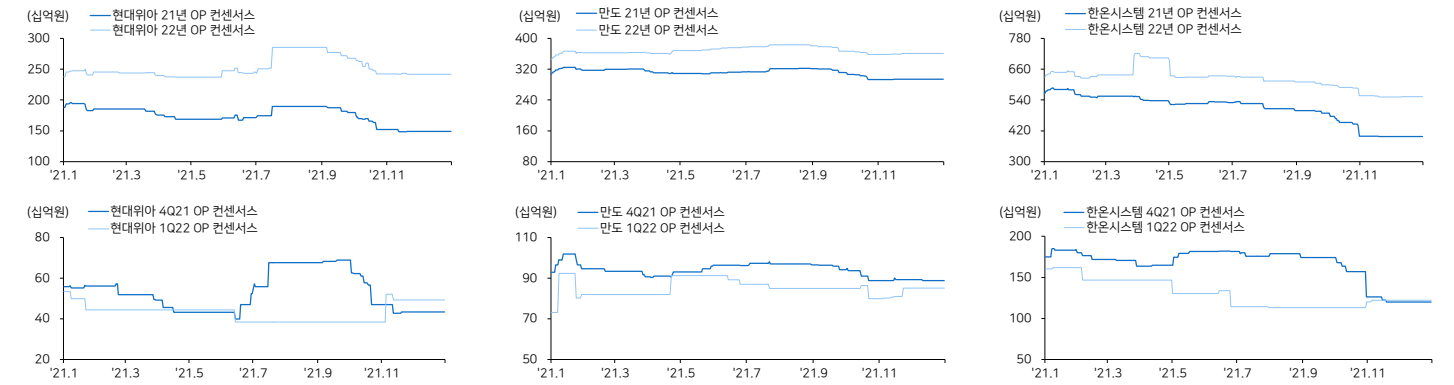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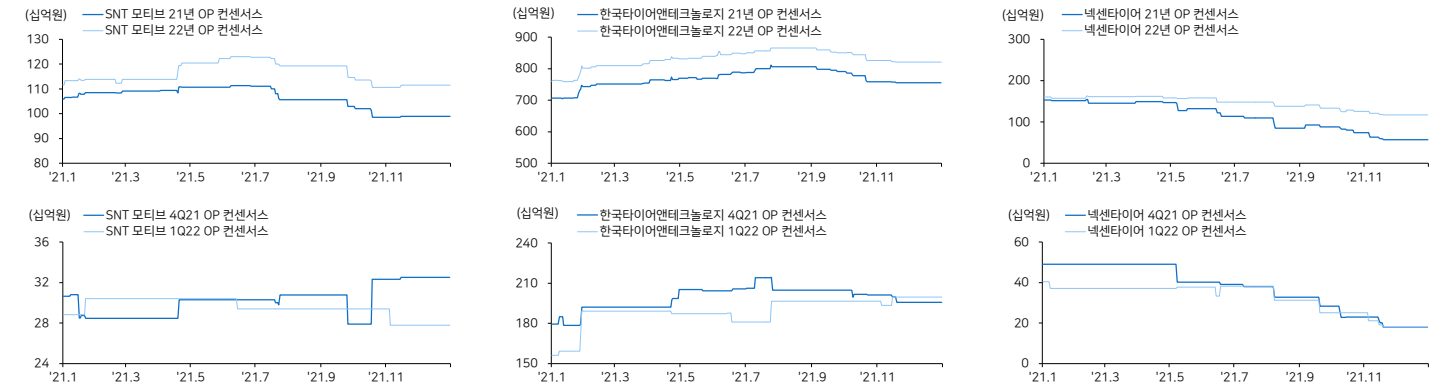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보스톤다이내믹스 물류로봇, 내년께 대량 상용화 (한국경제)

보스톤다이내믹스 창업자인 마크 레이버트 회장이 이르면 내년 현대자동차와의 협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로봇개' 스포츠에 이어 물류로봇 스트레치를 양산할 계획도 공개. 내년 대량 상용화 계획 중.
<https://bit.ly/3HUVMSZ>

현대차 투싼, 전세계 SUV 판매 '4위'...테슬라 모델Y '톱10' (THE GURU)

현대자동차 중형형 SUV 모델 '투싼'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SUV 판매 4위를 기록, 기아 스포티지도 8위를 차지. 올해 SUV 판매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투싼·스포티지에 힘입어 현대차·기아 판매 견인이 예상된다.
<https://bit.ly/3fctSpQ>

GM, Ford, Stellantis prepare EV entries for new pickup battle (Automotive News)

GM의 허머 EV, 포드의 울름 F-150 라이트닝을 시작으로 '23년 GM의 실버라도 EV 등 향후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전기 픽업트럭 경쟁 강도가 강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Rivian의 R1T와 스텔란티스의 전기 픽업트럭 모델이 추가될 것.
<https://bit.ly/3417jYp>

Strong demand revs Rolls-Royce car sales to a record high in 2021 (Reuters)

BMW 계열사 롤스로이스는 글로벌 럭셔리 수요 급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1년 판매량이 49% 급증해 사상 최고인 5,586대를 기록함. 소비자들이 더욱 많은 가치분소비를 갖게 됨에 따라 중국/미국 시장에서 럭셔리 수요 성장 중.
<https://reut.rs/3FdoGN2>

아이오닉5·EV6' 스웨덴 들종 예고...현대차·기아, 전기차 부문 '2위' (THE GURU)

현대자동차·기아의 E-GMP 기반 아이오닉5와 EV6가 스웨덴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중. 현지 출시 6개월 만에 월간 판매 7위와 12위에 올라섬. 올해 현지 전기차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인기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s://bit.ly/3nd7ZLo>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전기차 제조원가가 고공행진 (뉴시스)

전세계를 강타한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 제조원가가 고공행진 중.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과 원자재 가격 폭등, 물류비용 증가 등 원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며 가격 동등화 달성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등장.
<https://bit.ly/3GfWU3W>

Zeekr announces huge delivery goals for 2022, plans for EU expansion in early 2023 (electrek)

중국 완성차 업체 Geely의 브랜드 Zeekr는 '22년 목표 인도량을 70,000대, '25년 650,000대 판매를 목표로 함. 또한 '23년 EU로의 확장 계획을 언급함. 이로 인해 '25년 수출 물량은 100,000대로 예상된다.
<https://bit.ly/3HM9lE>

Tesla signs deal for first U.S. supply of nickel with Talon Metals (Reuters)

Tesla는 미국에서의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니켈 공급을 위해 Talon Metals Corp와 계약을 체결함. 향후 6년간 75,000톤의 니켈을 구매할 계획이며, 코발트와 광광석 역시 Talon으로부터 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reut.rs/33kfUJ>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